

## 지역 소식통

완주,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진행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유희순 센터장)가 삼례, 이서, 구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임실을 찾아 행복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26일 일실 치즈마켓에서 열린 행사에는 다문화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프로그램 '소통! 행복의 첫 걸음'과 '임실N치즈' 체험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다문화가족 40여명은 전문강사와 함께 감정교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희순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앞으로 가족은 물론,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중복기자

## 황산면민의 날 행사 성료

황산면 지역별전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 26일 황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황산면민의 날 행사가 면민들을 위한 학교의 장을 마련하고 출향인에게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와 국회의원, 나병관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해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기념행사와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 황산면 자매도시인 전주 효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장구민요, 고전무용과 황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생활체조 공연 등 식전 행사에 40여명이 참여하여 민간단체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였고, 면민들 또한 제기차기 등 민속 놀이를 통해 그간 쌓인 피로를 풀고 마음껏 웃으며 즐기는 자리가 되었다.

/김제=곽노태기자

## 김제시 성덕면, 복지하브화 사례관리 회의 개최

신형순 김제시 성덕면장이 지난 24일 복지하브화 일원으로 지역사회복지문제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목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새로 부임한 치안센터장(경위 인복재)에 대한 신규위원 위촉과 위기상황에 있는 5가구에 대한 사례회의를 통해 공동모금회 성금 및 긴급구호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브레이нст로밍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정하지 못하여 다음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벽골제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 벽골제권역 중심 '에듀·튜어리즘' 선도모델 관심 집중

김제시가 대통령 직속 지역별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지역별전사업 평가에서 벽골제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평가를 얻었다.

이번 평가는 지역별전위원회가 전국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기획과 집행, 성과 등을 2016년 11월 설명회를 기점으로 2017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평가하는 등 지역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에 힘써 왔으며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동식품부 공모에서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받음으로써 관광에

사업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고 이를 대표하는 우수사례로 벽골제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천하여 벽골제 권역을 중심으로 한 에듀(Education)-튜어리즘(Tourism)이라는 선도모델이 큰 관심을 받았다.

벽골제 권역은 주벽골제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스스로 주민리더를 양성하는 등 지역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에 힘써 왔으며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동식품부 공모에서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받음으로써 관광에

/김제=곽노태기자

## 김제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 벽골제 등 관내 관광명소·지평선축제 등 사전 홍보 집중

김제시는 지난 24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벽골제 등 관내 곳곳의 관광명소와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김제지평선축제를 널리 알리는 등 다가오는 9월 20일 축제 개회를 대비하여 수도권 사전 홍보에 집중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 주최,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였으며, '여행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대전 서울 국제 여행 페스티벌 등 박람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세계 주류 페스티벌 등 참관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각종 이벤트와 부대행사도 진행되어 참관객들의 기대를 높였다.

이번 홍보전에서 김제시는 대표관광지인 벽골제, 역사교육 및 문화체육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는 원봉집강소 및 소설 아리랑의 배경 이리랑문화마을을 소개하였으며 2017년 전북방문의 해의 성공적

인 추진을 위해 토템관광의 일환으로 출시된 전북투어패스 카드 홍보 지평선쌀 등 지평선브랜드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 알림으로써 지평선 김제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했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제19회 김제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홍보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에게 리플렛과 기념품을 나눠주며 축제 프로그램을 열성적으로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자세로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기자

## 완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주택 보조금 지원

완주군에서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조금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주

택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지원금과 전리복도 및 완주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선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에서 월평균 450㎾h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면 발전시설 설치비 중 351만원을 보조한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곽노태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한 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의 판매

진안고원 청정농산의 판매

진안군청 청정농산과  
063-430-2951

## 로컬푸드 활용 음식들 '눈길'

##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음식발표회 개최

완주군이 올해 와일드푸드축제에서 선보일 음식들을 사전 공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5일 완주군은 문화강좌실에서 와일드푸드축제 음식을 미리 선보이는 '2017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음식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음식발표회에서는 산버섯을 이용한 통삼면·산버섯제육볶음, 민들레를 이용한 고산면·민들레묵무침, 인삼을 이용한 운주면의 인삼 수육냉채가 선보였다.

또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멀거리로 통삼면의 홍시와 풀과 슬러시가 소개됐다.

이외에도 전 연령대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완주의 로컬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개발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올해의 와일드푸드' 선정을 위한 현장투표도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올해의 와일드푸드'는 가능한하지 않은 건강

함을 상징하는 아생성을 접목한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독특한 멀거리축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올해의 와일드푸드 후보로 올라온 요리는 ▲페지코꼬치 ▲거제미 빼빼로 ▲개구리튀김다리 ▲메뚜기튀김 ▲깻잎리미볶음으로 SNS(페이스북)과 현장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오는 9월 22일 개최되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개막식에서 공개된다.

올해의 와일드푸드 투표는 군청 현관에서 지난 25일부터 시작됐으며 28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자연 생태 속 아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색거리리를 지향하는 축제로 3년 연속 문화관광유망축제에 선정되는 등 주목받는 축제다. 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고산자연휴양림일원에서 개최된다.

/완주=이중복기자



## 김제시보건소, 취약계층 결핵 이동검진 실시

김제시보건소가 최근 대안결핵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여명을 대상으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인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했다.

검진대상기관은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사업장, 김제노인전문요양원으로 집단시설에서 밀접하게 접촉하여 생활하거나 면역력이 약해 질병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완주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먼저 선정된 후 발전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완주군에 올해 10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제=곽노태기자

놓치는 것을 방지하고, 검진치료에 전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중증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동검진 결과 발견된 결핵환자에게 와치를 때까지 환자등록 및 치료, 복약상담, 복약확인 관리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높고, 결핵은 한 번 감염된 사람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기자

